

STX, 대형 캐나다 가스광구 인수

Encana, 맥사미시 광구 지분 1740억원에 ... 자원개발 사업 본격화

STX그룹이 캐나다에서 대형 가스광구를 인수하며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STX에너지(대표 이병호)는 최근 캐나다 최대 가스기업인 EnCana로부터 맥사미시 가스광구 지분 100%를 1억5200만C달러(약 1740억원)에 매입했다.

면적 616km²로 서울시보다 큰 맥사미시 광구는 가채 매장량이 1200억입방피트(석유환산 2083만배럴)로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 37일분과 비슷하며, 생산량은 하루 2050만입방피트에 달한다.

STX에너지는 인수 후 추가 시추 등의 개발을 통해 생산량을 하루 2700만입방피트까지 늘려나갈 계획으로 해당광구의 지층 구조 및 생산 추이로 볼 때 앞으로 30년 이상 연평균 450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호 STX에너지 사장은 “지금까지 단순 지분투자 중심의 해외자원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광구지분 100%를 가지고 가스전을 직접 경영하는 운영권 사업자로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STX에너지는 현재 아일랜드 해상광구 개발, 미국 텍사스 육상광구 개발, 우즈베키스탄 가스화학 공장 건설 및 유전 개발 등 세계 곳곳에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등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에너지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해 2012년에는 비조선·해운 부문 매출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30>